

수능 2주 전부터 저는...

국어:

월수금 상상, 화목토 이감 병행했습니다. 오답은 바로바로 했습니다. 남은 시간에는 이전에 푼 다양한 모의고사들의 문법 지문들(특히 중세문법)을 다시 봤습니다. 국어는 항상 3개~5개씩 틀렸습니다.

수학, 영어, 과탐:

월수금 평가원기출모의고사 + 화목토 사설모의고사 병행하고 바로바로 오답했습니다.

평가원기출모의고사는은 시간도 적게 걸리고 대부분 다 맞아서 오답할 게 거의 없었고, 사설은 1개~4개씩 틀렸습니다. 남은 시간에는 약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부터 그 부분에 해당하는 유형별 기출문제집을 다시 펴서 기억을 되살렸습니다.

한국사:

월수금 평가원 및 교육청 기출모의고사 문제집을 내신때처럼 반짝 노트 정리하면서 공부했었습니다. 사실 한국사는 10월 초(수능 한 달 전)부터 시작했습니다.

하루 동안 워처럼만 규칙적으로 하니 생활패턴에 안정감도 생기고 뒤숭숭한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고 시간도 금방 금방 잘 갔습니다.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도 조금만 더 열심히 불태웠으면 좋았을텐데라는 아쉬움이 남네요.

다음으로, 여러분들에게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,

저는 한국사를 제외한 모든 과목에 대하여 **모의고사를 보면서 실수했던 것들, 습관들여야 하는 것들을 바로바로 적은 리스트**를 이면지에 톱툰이 적어놨습니다.

이 목록을 작성함에 있어서 가졌던 제 모토는 습관이 덜 들여졌거나 실수를 해서 대학바뀌는 일은 없도록 하자였습니다.

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습니다:

(여러분들도 본인만의 실수나 습관들을 스스로 더 적어보시라고 다음 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. 다음 페이지만 출력하시고 과목별로 여러분들만의 실수나 습관들을 그 뒤에 더 적어보시면 되겠네요!)

국어:

모든 세트의 첫 발문은 항상 먼저 읽은 뒤에서야 딸린 문제들의 발문이든/지문이든/<보기>든/선지든...을 읽기 시작하자.

세트의 첫 발문이든 딸린 문제들의 발문이든, 절대 발문을 대충 읽지 말자.

발문 읽을 때 '옳은/옳지 않은' 체크하자.

지문 읽을 때 '~가 아니다' or '~지 않은'과 같은 부정어가 나오면 그 대상에 X표시를 하자.

비문학은 초반부터 지문의 큰 주제를 대충 파악하느냐 아예 못 파악하느냐는 천지차이니까 지문들의 첫 문단은 꼼꼼하게 읽자.

'그러나', '하지만'에 세모표시...만 하지 말고 화제가 어떻게 바뀌는지 큰 시각에서 생각하면서 읽자.

문학작품에 <보기>가 주어졌는데 그 내용을 훑었을 때 줄거리나 배경지식에 대해 알려주는거면 <보기>를 먼저 잘 읽고 지문 읽기 시작하자.

문학지문에 장소 및 시간은 반드시 네모표시, 인물들은 동그라미표시.

고전소설에서 지문읽기 전에 첫 문항이 만약 [선지에 인물들의 이름이 나오고 개네가 언제/어디서/뭘/어떻게/왜 했는지 물어보는 문제]가 나오면 최소한 인물들의 이름/성별부터 파악하고 지문 읽기 시작하자.

수학:

직각삼각형의 변의 길이를 삼각함수로 나타낼 때는, theta가 어느 각에 있는지, 직각은 어디 있는지 인식 잘해라
삼각형 넓이구할 때 밑변 곱하기 높이에다가 1/2까지 곱하는거 반드시 미리미리 적어두자.

원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다면 지름을 알려준건지 반지름을 알려준건지 잘 파악하자.

계산할 때 부호실수 조심하자 (특히 부분적분 두 번 연속으로 할 때 부호 헷갈리지 않도록 차근차근 계산하기).

속미분 까먹지 말자 (특히 복잡한 합성함수나 함성함수 안에 삼각함수가 있는 식을 미분할 때).

합성함수의 미분(f/g) 할 때 분자는 [+f'g 마이너스 fg']이다. 가끔씩 f나 g의 식이 상대적으로 길거나 복잡하면 정 신줄놓고 [f'g+fg]라고 적을 때 있다.

tan(x) 적분하면? 그냥 ln(|cos(x)|)+C가 아니라 마이너스 ln(|cos(x)|)+C이다, 절댓값 빼먹지 말자, 적분상수 빼먹지 말자.

적분구간에 미지수가 있으면, 1.상수를 대입하거나, 2.미분을 해

분수식에서 분모는 절대로 0이 될 수 없다. 즉, [f(e^x)/g(cos(x)) = a] 와 같은 등식이 있으면 보자마자 g(cos(x))≠0을 써야 한다.

ln 안에는 절대로 0이나 음수가 될 수 없다. 즉, [ln(f(x)) = a]와 같은 등식이 있으면 보자마자 f(x)>0을 써야 한다.

경우의 수 구할 때는 차분히 차근차근.

시그마가 나오면, 시그마 뒤에 있는 식을 변형하려는 생각보다는, 일단은 첫 번째 항부터 일일이 다 써보자.

영어

듣기에서 '5개 중에서 하나 고르는 문제'는 아닌 것들을 바로바로 X표시 해버리자.

듣기에서 '계산 문제'는 불러주는 수치들을 시험지에 바로바로 적자.

지문 짧다고 건너뛰지 말고 집중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자.

표 문제는 자료의 수치/제목/부제목 등등을 꼼꼼하게 보자.

마지막 순서문제는 읽으면서 인물들 이름에 동그라미 표시 하자.

생1: <https://orbi.kr/00031314458>

화1은 본지가 오래돼서 음.. 지1은 개정이 돼서 쓸모가 없네요ㅠ

방금 페이지의 보라색으로 된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어와 영어는 수학과 과탐에 비해 상대적으로 '순간적인 실수(?)'를 할 만한 요소가 적다고 생각하고, 평소 습관이나 태도적인 측면이 성적을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. 또한 어떤 과목이든 간에 수능날에도 문제들의 발문은 꼭 다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발문 짧다고 절대 무시하지 말고 침착하게, 꼼꼼이 다 읽을 것!